

社說

한탄강댐 건설 원점에서 시작하라

한탄강댐 건설을 처음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포천시 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댐 건설을 놓고 7년 동안 수자원 공사와 철원군 주민들간에 갈등 등을 빚어왔다. 여기에 포천시 민들이 홍수조절용은 반대하고 다목적용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포천시민과 철원군, 수자원 공사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자칫 포천시민과 철원군민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즉, 한탄강댐 건설 문제를 놓고 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용, 포천시는 다목적용, 철원군은 홍수조절용이던 다목적용이던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홍수조절용' 건설을 위한 추진협의체인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를 지난 20일 구성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협의체가 제대로 풀리 만무하다. 처음부터 댐 건설을 반대해 온 철원군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이 불참해 결국 반쪽짜리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선출하기로 한 공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했다.

협의체 구성이 지역현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비교개로 진행했다. 댐 건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추진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왔다. 99년 댐 건설을 다목적용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2003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연간 350일 이상 수문을 개방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2004년 홍수조절용으로 최종 결정해 놓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수물 민 대표 등과는 지속적인 대화를 해 왔지만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비공개로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과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

연중 15일 동안 홍수조절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과 400여만평을 수장시킨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이같은 댐을 건설할 경우 천혜의 자연자원 상실과 주변지역 황폐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자원공사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홍수조절을 위해 댐 건설한다면 차라리 홍수가 우려되는 한탄강변 쪽을 높이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와 포천시, 철원군이 댐 건설에 관한 입장도 서로 다른 만큼 댐 건설의 필요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그동안 반대해 온 철원군 주민들과 포천시민들이 댐 건설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문제로 포천시와 철원군 주민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영북면 야미1리 경로당竣工

‘老人들의 활기찬 여가활동 공간 마련’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경로당 준공식이 최근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관계자, 면 단위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준공예이 프를 절단하고, 새롭게 마련된 경로당을 유용하게 활용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며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순길 노인회장은 현대식 경로당 준공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으며 시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야미리 경로당은 건축면적 39평 규모로 건립됐으며 1억5천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경로당은 앞으로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도로 활용돼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경로당 준공식이 최근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관계자, 면 단위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중희 민주정당 포천시협의회장

자유기고

대북 포용정책은 이미 효용을 상실했다

북한 핵 실험 강행에 대해 여당은 "북한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김정일은 한민족인 남한에는 절대 핵 무기를 쓰지 않고 미국·일본만을 향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PSI 동참이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중단 등의 대북 제재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발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제재 협조 요청에 대해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절대로 남한에는 핵을 쓰지 않는다고 확실하는 여당의 근거는 무엇인가? 궁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안 하기 때문"이라며 북핵 실험이 미국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화기에 애하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을 생각해 보자.

클린턴 대통령 시절 당시 윌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했고 북한의 조명록은 워싱턴에 가서 군복 정장 차림으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할 정도로 북한과 미국은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때에도 뒤에서는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실험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었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를 탓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실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의도를 북한에 들리지 않아야 했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다.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 목적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각종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북한에 따뜻한 햇볕을 비추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고 중국에는 북한 공산 독재 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대북 포용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북한이 이 목

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남한으로 먼저 개성공단을 남북한 도 체제 유지를 위해 뒤에서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남북 협력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의 능동적 참여이다.

먼저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고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체현하게 하는 장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음을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알리는 등 투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이것의 대가로 지원된 4억5천만 달러의 조건 없는 현금이 김정일 정권에 들어

가 핵무기 개발의 종자돈으로 쓰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 때까지 한시적으로 끊어야 한다.

이렇게 "핵 폐기 없으면 대북 포용정책도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따뜻하고 든든한 봉사경찰상' 구현

포천경찰서, 제61회 경찰의 날 기념행사 가져

포천경찰서(서장 김중해)는 10월 20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61번째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전 경찰관 및 협력단체장을 모시고 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서장 및 각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현충탑 참배 후,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전몰경찰관에 대한 묵념, 모범 경찰관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 대통령 치사를 경

김중해 포천경찰서장은 치사 대독에 앞서 최근 안락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촐한 행사로 진행함에 이해를 구했고, 경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 세계 초일류의 대한민국 경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는 대통령 치사를 통해 "모든 업무에 있어 친절, 공정성을 강조하며, 따뜻하고 든든한 봉사 경찰상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 전 15분간의 VTR 시청을 통해 경찰혁신의 추진방향 및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이 대독하는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창간기념식 격년제 시행

운영위원회, 포천신문 5개 위원회 초청키로

본지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제 58차 정기회의를 갖고 매년 12월 15일 개최되는 창간기념식을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념식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격년제로 시행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는 기념식 규모를 대폭 축소, 본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자문위원회, 조사위원회, 주부 명예기자단, 학생 명예기자단 등과 기관장만 초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추계야유회와 관련하여 해외 연수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편 최효열 본지 발행인은 "9월 정기회의 때 박운국 포천시장을 초

청, 포천시 현안문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운영위원회가 58차 회의를 갖게되는 등 포천신문 5개 위원회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포천신문 추추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백부가 부위원장 맡게서 최근 질병으로 다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회복중"이라면서 "위원들님들이 건강에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이용 위원장은 "건강을 유지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사업과 친목을 다질 수 있다"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pricing, and a list of subscribers.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은 전국 最高의 지역신문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pricing, and a list of subscribers.

A large table listing the publication dates and issue numbers of Pocheon News from 2000 to 2006.